(註) 北面 丘陵 南側岩壁에서 磨崖三像을 주목하였다。이 三像中 中央像은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 推定되는데 素髮에 肉髻는 낮고 넓게 퍼져 얼듯 肉髻가 없는듯이 보인다。귀는 보이지 않고 細眼의 눈두등은 불룩하고 코는 龜裂로 破失되었다。口唇은 微笑를 짓는듯 하며 양볼은 오동통하다。法衣는 通肩으로서 左肩上에 한겹 뒤집혀 걸쳐있고 衣襞은 二條로 左胸앞으로 내려 中央으로 흘러내렸으며 胸部에는 若干낮은 裙衣帶가 있고 左側팔에는 一條의 衣紋이 있다。左側衣襞은 右肩에서 무릎위로 걸쳐내려 膝部를 덮어 발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목에는 三道가 있는듯 하다。像後面에는 圓形의 頭光과 身光이 陰刻되어 있다。다음에 左右의 兩脇侍像은 모두 主尊을 向하고 甲衣를 입고 있다。左像은 곱슬머리에 귀는 廣長하며 鳳眼에 코는 비교적 높다。목에는 Ω形의 옷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경주의 八部衆或은 十二支像에서 흔히 볼 수 있다。左手는 무릎위에 올려놓고 右手는 劍을 잡고 結跏坐한듯 하다。右像은 遊戲坐하고 兩手로 三叉戟을 잡는듯하며 衣紋은 左像과 같다。頭部는 마치 印度人들의 「타반」같은 形態의 것을 쓴듯 하며 눈은 부릅떴으며 코는 매우 높다。이들 兩像은 모두 武器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神將像이 아닌가 한다。主尊像은 혹시 密敎系統의 彫刻이 아닐까 하며 新羅統一期의 作으로 推定한다。이들 三像은 동시에 이곳 寺址 및 南方의 築石壇形 遺址와의 關係에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三像總高 各 八八㎝、主尊光背全高와 同幅 九〇㎝)

(註) 本誌 第五卷 八號 資料 「慶州 新羅石佛立像蓮座 二例」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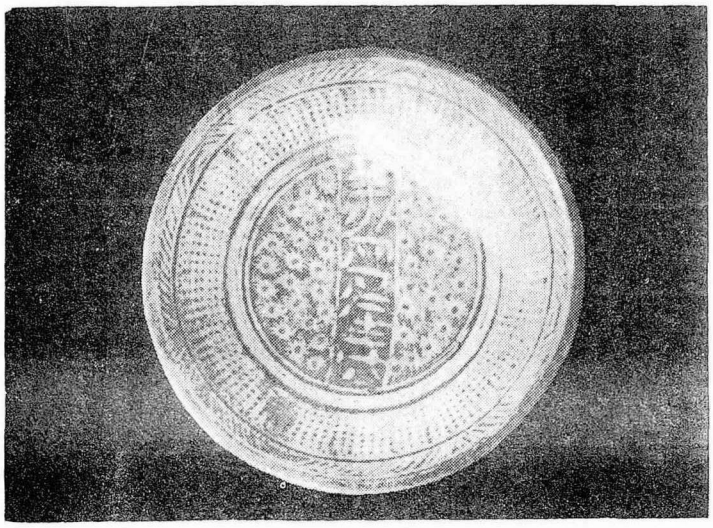
粉青砂器 「義興」銘器 三例

姜 敬 淑

粉青砂器에는 官廳名들이 銘記된 例가 많다는 事實은 이미 알려져 있다。그 中에는 官廳名뿐 아니라 地名이 같이 곁들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이에 對하여 늘 注意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昨年十月과 今年二月에 걸쳐 「義興仁壽」、「義興長興」、「義興長」 銘文이 있는 粉青砂器 사발과 접시들을 市內 某骨董商에서 調査撮影할 機會가 있었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三點모두가 同一한 手法이며 역시 같은 가마에서 구어졌음을 말하여주고 있다。먼저 「義興仁壽」銘 접시는 높이 三·九㎝、口徑 十五·二㎝ 굽徑 四·二㎝ 굽높이 〇·九㎝로서 그릇內面 中央바닥에 縱書一行으로 「義興仁壽」의 四字를 白土嵌入하였고 그 주위로는 菊文을 印花하고 다시 그 밖으로는 蓮圈文과 口緣에는 草葉文을 白象嵌으로 처리하였으며 裏面도 連圈文으로 器面을 처리하고 있다。全體的인 色調는 灰靑에 灰黃이 약간 감도는 比較的 光澤이 좋은 접시이며 白土의 嵌入이 흩어진 곳이 많은 低質의 磁器이다。釉藥은 失透性의 粉靑系 釉藥이다。比較的 부드러운 胎土를 使用하였고 굽에는 四個의 흙비짐눈을 使用한 흔적이 있고 굽內 물레의 자국과 釉藥이 있는 굽形式을 보여주고 있다。



「義興長興」銘 사발은 「義興仁壽」와 銘字形式이 같으며 이 銘文 주위로는 蓮圈文과 나비文을 白土印花하였고 다시 그 주위로는 蓮圈文 口緣에는 草葉文이 있고 裏面文樣은 거의 形式化된 蓮圈文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들 文樣은 比較的 정성껏 도장이 꾹꾹 찍혀지고 白土嵌入도 良好한 편이다. 灰青灰黃의 色調를 띄운 釉藥은 失透性의 光澤釉이다。 굽은 모래굽이고 굽內에는 施釉의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물레의 자국도 없다。 높이 六·九㎝、口徑 十八·七㎝、굽徑 五·八㎝、굽높이 一·二㎝로 「義興仁壽」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義興長」 접시 역시 字銘의 位置나 樣式은 前二例와 거의 同一하다。 높이 四㎝、口徑 十四·八㎝、굽높이 〇·八㎝、굽徑 四·五㎝의 灰黃色이 감도는 접시로서 粉粧은 比較的 두터우나 雜物이 많이 섞인 胎土로서 釉藥을 바른 器面에는 數處에 작은 구멍이 뚫려졌고 白土가 뭉쳐 文樣이 흩어진 低質의 下品磁器이다。 內面中央 「義興長」의 銘文 주위로 六個의 흙비짐눈을 使用한 흔적이 있어 此種접시들의 燒成方法을 말해주고 있고 굽밑에도 五個의 흙비짐눈을 使用했으며 굽內 釉藥도 있다。

以上에서 볼때 이 三點의 共通點은 銘文을 넣은 樣式이 內面中央 바닥에 縱書一行으로 白土嵌入하였다는 點과 蓮圈文樣、굽의 처리 胎土、釉藥、其他、粉粧手法 等으로 보아 義興에 存在하였던 어느 同一가마의 產品이라고 볼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 義興縣 土產條에 磁器가 이地方 土產物의 하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特히 仁壽府라 하면 太宗의 世子府였으며 定宗二年에 設置되었다가 世祖元年에 廢止되는 官廳이므로 이 期間中에 義興地方의 가마에서 中央에 納品키 爲한 磁器를 굽 하나의 官窯였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地方에 우수한 粉靑의 窯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慶尙道地方의 窯址에 對하여는 學術調査報告가 없음으로 學術的인 근거를 잡을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高靈、彦陽、軍威、等의 仁壽府銘 그릇들이 구어졌던 가마와 더불어 이 義興窯址의 調査에 期待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後記〕 德壽宮美術館에도 「義興」 銘文의 粉靑砂器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었으나 아직 그 實物을 接한 바 없어 機會있는 대로 調査할 생각이다。

沃溝 竹山里 三層石塔

李 殷 昌

沃溝郡 大野面 竹山里의 三層石塔을 一九六五年 三月에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裡里에서 群山으로 通하는 道路를 잡아들어 約 八㎞쯤 가면 左便으로 竹山里 塔洞部落이 있으니 뒤로는 建獐山이 있고 앞으로는 面名과 같이 湖南平野의 北端인 大野가 展開되었다。 이곳 部落에 瓦片이 散在한 逸名寺址가 있고 寺址에는 靑龍寺라 이름하는 草屋庵子가 있고 庵子西南